

강원도의 에이즈관리 실태

이 효 순 / 강원도 보건위생과



1. AIDS감염 및 관리실태

에이즈에 관한 우리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9년 처음 감염자 관리를 실시한 이래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골짜기 작은 지역에서도 AIDS감염자를 접한 경험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98년 3월말 현재 13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어 전국 발생 776명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 전원이 남자로 부부감염 또는 동거인에 의해 감염된 사례는 없었고 전원이 성접촉(해외경험 5명, 동성연애 6명, 국내 2명)에 의한 감염이었으며, 연령대 별로는 10대 1명, 20대 9명, 30대 2명, 50대 1명으로 아직 환자로 판정되어 입원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

또한 도내에서 발견된 감염자는 2명으로 타도에서 감염자로 밝혀진 후 전입되었거나 주소지가 도내로 되어 있어 관리를 담당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에도 도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거주하고 있는 감염자는 5명에 불과하여 정기면담 및 면역검사시 애로가 있는가 하면,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과 자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감염자를 관리하는 일선시·군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다.

2 감염자 조기발견 활동

검진체계는 시군(1차)-보건환경연구원(2차)-국립보건원(3차)에서 실시하며 복지부의 검사체계의 개선

계획에 따라 '95년도에 5억2천5백만원(도비 30%) 예산을 확보 7개시에 ELISA법 검사장비를 구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PA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위생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금년부터 일반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제외됨에 따라 직장·단체사업장 등의 집단 건강진단시 검진유도와 예방홍보를 통하여 익명검진 제도를 안내하고는 있으나 검진을 희망하여 검진받는 경우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일반주민의 검진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요구 되기도 한다.

3. 감염자의 관리

감염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정기면담 및 전파방지 교육, 고충상담과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는 연세대학교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등 전문진료기관에 연계,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자중 5명이 전문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AZT투약을 받고 있으며,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9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국·도비(각 50%)를 지급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진료기관과 먼거리 거주로 빈번한 진료에 따른 직장생활의 애로, 치료약의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체감하지 못함으로써(국가배정 AZT만 투여)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염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기관에서의 치료방법의 다양화와 진료방법의 개선, 진료·치료경과의 자세한 안내등 친절한 진료서비스와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4. 예방 홍보활동

예방 홍보활동으로는 국가에서 배



■ 발생년도별

(단위: 명)

년도별	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감염자수	13	1	1	—	—	3	2	3	1	2	—

■ 직업별 현황

(단위: 명)

계	선원	목수	학생	회사원	자영업	일정한 직업없음	비고
13	3	1	1	2	1	5	

정되는 홍보물과 자체 제작한 홍보판(원주), 차내 비치용 향수(강릉),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사진패널의 전시, 시·군청소식지에 게재 및 위생교육 등 집단교육시에 예방교육 실시로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가두캠페인시에는 민간단체, 위생관련단체, 일반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이즈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도에는 '96년도에 제1회 에이즈 예방 강원도민 결방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강원도 지회가 설립되어 에이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부터 도비보조금(1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학생 위주의 에이즈 예방교육 및 계몽강연회 30회 30,000명,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시·군지역을 순회하면서 25회 10만명 참여계획으로 캠페인 및 사진패널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5. 예방관리 방향

에이즈의 경우 아직까지 완치되는 치료약은 개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감염자의 계속 증가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전파경로가 정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대상자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지식을 함양시키고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정확한 정보제공(문제발생 보다는 예방홍보 중점)을 통하여 개개인의 예방과 대처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감염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밀유지등 관리에 제약이 많아 어느정도 이상의 관리는 불가능하므로 지침이나 법령에 의한 반강제적 관주의 감염자관리는 지양하고 감염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식처의 제공과 복지시설 확충, 불우계층의 지원확대 등 사회적 기반조성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감염자 또한 자기비하나 자포자기 하는 것은 본인,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 될 것이 없으니 희망을 갖고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었으면 한다. ㉞